



B형 간염과 아시아 지역사회

아시아인은 왜 비아시아계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현재 B형 간염에 걸린 아시아인의 숫자는 동종의 병에 걸린 비아시아인의 수 보다 많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B형 간염이 아시아인만의 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수백만 명의 아시아인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사회는 그와 같이 많은 감염자 수로 출발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감염율을 보입니다. 비 아시아계의 사람들은 적은 수의 감염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의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한 박사님의 간염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형 간염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비아시아인들과는 달리 어떤 양상으로 퍼집니까?

아시아인이나 비아시아인 모두 혈액과의 접촉, 무방비상태의 성관계,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및 분만 중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신생아에게로 등의 경로로 B형 간염을 알게 됩니다. 양 그룹에 대하여 직업이나 생활방식은 동일한 정도의 위험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유아나 어린이일 때 B형 간염에 감염됩니다.----출생 시 부지불식간에 감염된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아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또는 가까이 살고있는 다른 감염된 어린이나 성인의 피에 노출됨으로써 감염됩니다. 유아나 어린이가 한번 B형 간염에 노출되게 되면 만성 감염증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사실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많은지를 설명하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비교하여 볼 때, 비 아시아인들은 성인 때 무방비적인 성 관계를 통하여 가장 흔하게 감염됩니다. 성인으로서 그들의 면역체계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하며 B형 간염으로부터 회복됩니다.

B형 간염의 만성보균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개월 후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는 사람은 만성보균자가 되었다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혈액과 간에서 머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보균자가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생의 말기에 간 경화와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1번 또는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정기적 검진을 위하여 B형 간염에 대해 잘 알고있는 의사(예: 간 전문의)를 방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방식의 변화가 있고 활동성 간질환의 증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약물치료법이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만성 B형 간염의 감염에 대하여 걱정해야만 합니까?

만성보균자 네 명중 한 명은 간 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B형 간염 검사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성 B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정기적 의학검진과 신약물의 치료를 통하여 간암의 예방 및 생존의 기회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만성 보균자는 심지어 자기가 감염된 줄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B형 간염은 한 가족과 그 지역 사회를 통하여 몇 세대로 퍼져 나갑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아시아 간 센터](#)에 의하면 :

- 간염은 한국계 미국인들 중에서 네 번째로 흔한 암의 원인입니다.
- 매년 전세계적으로 55 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간염으로 사망합니다.
- 전세계 모든 간염의 80%는 만성 B형 바이러스간염에 의하여 야기됩니다.
- 4 명의 만성 B형 바이러스 보균자중 한명은 간암 또는 간 경화로 죽게 됩니다.
- 한국계 미국인 남자의 간암 발생율이 백인 미국인 남자보다 8 배 더 높습니다.
- 간염은 일반인이 가장 생산적일 때인 35 세에서 65 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 어떤 보균자는 30 세의 나이에 간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매년 간염에 의한 사망자 중 36 만 명이 극동아시아 출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한국, 중국, 홍콩, 및 일본)

전세계적으로 약 100 만 명의 만성 보균자가 매년 간암 또는 간 경화로 인한 간 부전증으로 사망합니다. (이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일 2700 명 사망, 매 시간당 114 명 사망, 매 분당 2 명 사망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B형 간염의 위협을 막을 수 있습니까?

기쁜 소식은 당신의 가족과 한국인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감염의 순환고리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B형 간염 검사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가족 모두가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십시오. 당신 자신도 예방 접종을 받으십시오.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를 찾으십시오. 이미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 되었다면 담당의사나 간 전문의와 치료의 선택에 대하여 의논하십시오.

만일 만성 B형 간염에 걸렸다면 치료법은 있습니까?

현재 미국 내에선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을 위한 두 가지 승인된 약물이 있습니다. :

Epivir-HBV(lamivudine)는 먹는 알약입니다.

Intron A(interferon alpha)는 주사로 투여 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한국에서도 구매 가능하며, 라미뷰딘 역시 제픽스 또는 헵토딘이란 이름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모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반드시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의사나 간 전문의들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최소한 1년에 1 번 내지 그 이상)

간 질환의 활성증후를 가진 환자는 치료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 선택 옵션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당신의 담당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치료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만성 B형 간염환자라면 누구나 적어도 1년에 1 번(필요하다면 그 이상)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만성 B형 간염의 치료를 위해 시험 개발되고있는 몇 가지 희망적인 새 약품들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새 치료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B형 간염 재단의 [Drug Watch](#) 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 차트의 정보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검사, 예방 접종 및 치료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습니까?

간단한 B형 간염 검사는 당신의 가정의, 지역보건소 또는 지역사회 보건의원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예방 접종 시리즈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사를 찾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B형 간염정보 및 도움전화(**1-888-888-0981**)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이 전화는 무료이며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사에 의해 제공되는 국립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정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 됩니다.